자비연민 베풀어 원융화합 사회 만듭시다

마음눈 뜨면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에는 찬란한 광명이 어둠을 삼켜버리듯 사바세계(娑婆世界)에 가득한 아집과 독선, 갈등과 투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등, 자유와 평화가 충만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본성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소동파'는 당나라 · 송나라 8대 문장가에 속한 대학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의 문장과 재주, 식견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참선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노산 흥룡사에 상총(常聰) 선사라는 안목이 고준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사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에 상총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는고?"

소동파는 선사의 물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과 정이 있는 유정물 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에 의심이 깊게 사무치게 되었는데, 친견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 몸과 온 마음이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 등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동파는 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문득 의심삼매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무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질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게송을 지었습니다.

溪聲自是廣長舌인데 山色豈非淸淨身이리오
夜來八萬四千偈를 他日如何擧似人하리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팔만사천 지혜의 말씀인데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밤이 옴에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서 보일꼬.

이후로 소동파는 남은 생을 마음의 고향에서 지혜와 자비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근원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입니다. 산하대지와 산천초목이 제각각 진리를 표현하고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속에 주위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공존 속에 원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성찰하고 국리민복을 염원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융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붉은 해가 떠오르니 온 세상이 찬란한 화장세계(華藏世界)요, 나날이 설날이며 시시(時時)가 태평성대(太平盛世)로다.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알고, 힘찬 울음소리로 만물을 깨우는 삶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들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수많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민족의 힘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러한 용기의 힘으로 다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임제 스님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앞장 섭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각 가정과 사찰에 만사형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를 비롯한 우리 종단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종단의 혼란이 함께 겹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나라도 희망과 변화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꾀하고 있고 종단도 지난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궤도를 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고종도 여러분, 우리 태고종은 역동적인 종단입니다. 지난 종단에 불어 닥친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다져진 역량은 국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더 높이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때 종단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변화의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국민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종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화합과 공경, 상생의 길만이 살 길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정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힘찬 닭 울음소리로부터 새해가 시작되어 온 누리에 찬란한 광명과 희망이 퍼져 나갑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화합하고 공경하며 상생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그리고 테러의 공포가 상존해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한 시기이므로 이념의 대립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공경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웃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자리이타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입니다. 화합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지혜를 발현해야 합니다. 정유년 새아침의 밝고 힘찬 기운이 온 누리를 덮었으니, 구류중생이 한 몸으로 환희하고 우주법계에 행복이 가득 차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은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누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고 다가올 날을 기약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수행정진으로 깨달음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순간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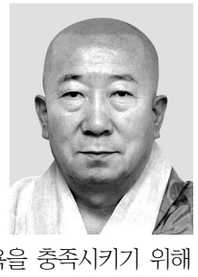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원을 세워갑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사상초유의 국정혼란 상황은 시대적 당체법문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진호국가불사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삼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 환란 또한 자주성 강한 국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질서 있는 안정을 되찾으면서 바른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나아가 한국불교의 새 시대를 위해서 자주정신을 굳건히 하며 정도를 실천합시다. 국내 정치와 경제상황이 안정되고 질서회복을 위해 밝은 지혜를 발휘하고 단결된 힘을 모읍시다.

청정법상 가르침, 온 세상에 나투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벽 첫 장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세상을 깨우는 참회와 기도 정진을 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평화와 행복의 문을 엽시다. 혼란스러운 열하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전번(傳繁)되어 세상을 촛불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변천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역경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가지의 모든 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 갈파하시고 오직 마음의 근본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어리석은 욕구 충족을 위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청정법성의 가르침으로 갈등이 없는 맑은 세상, 평화로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의 기원과 원력으로 행복의 문을 열어 갑시다.

새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합시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정유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세상에 힘찬 닭 울음소리 상서롭고, 새 희망의 나라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래 소리에 온 천지가 진동하네.

닭은 새벽을 알리고 빛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瑞鳥)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잡귀를 쫓고(逐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오덕(五德)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동물로 상징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명의 닭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용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가치의 정수를 지키지 못하며, 양심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닭의 좋은 이미지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은근한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고,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즉 희생정신을 가진 정의 선언, 깨달음, 위인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쉼 없는 정진에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구나.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여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상의 길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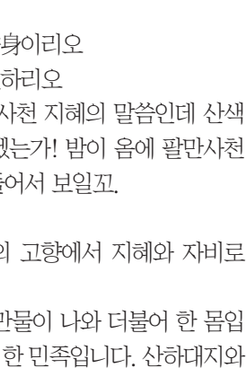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법을 알아 끝없는 미혹 번뇌의 무명 덩어리를 깨어 부수고 깨달음의 밝은 광명으로 자성(自性)의 등불을 켜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세상이 바뀌는 법. 피나는 기도 정진 없이 내 몸이 바뀌랴. 천 길 낭떠러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이들만이 가피를 얻을 뿐이니 불국정토가 장엄하게 전개 되리라.

억울함을 참고 인연을 받아들이며, 아무 것도 구하지 말고 그대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라.

자기 허물 깨달아 심인 구현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듯 새날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일(大日)의 밝은 광명이 정유년(丁酉年) 새날을 여니 눈 밝고 귀 열린 이 마음 밝혀서 법계법신(法界法身)의 형상 있는 그대로 보고 자성중생(自性衆生)의 음성 있는 그대로 들어 만다라정토 열어 갑시다.

사도(邪道)는 정도(正道)를 꺾을 수 없고, 사심(邪心)은 정심(正心)을 이길 수 없으며, 사욕(邪慾)은 대의(大義)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만능 물질시대에는 물질을 바로 쓰고 마음을 바로 써서 자기가 먼저 정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이 순화되면서 국가사회도 정화됩니다.

진각대도(眞覺大道) 항상 열려 있으니 공도(公道)를 깨쳐 사도(邪道)를 멀리하고 자주정신 바르게 실천하여 자기 허물 깨달아 심인(心印)을 구현합시다.

밝은 영혼 일깨웁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망만이 충만한 정유년 밝은 새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 듯 스스로 밝은 영혼을 일깨워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고라는 인간고의 해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도 역시 인간고의 하나인 인간의 이기적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